

<나의 삶 나의 하나님> <독도문제대한 한국의 대응방법>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말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일본에 대해 엄포를 해대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말로 독도를 "공인된 우리땅"으로 만들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서 이기는 방법 뿐입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도, 힘의 강약도 아닌 누가 얼마나 오랜기간 동안 "실소유"해왔나 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50년이나 독도를 실소유해 오고 있고, 사법재판소에 상정되기 전에 최대한 오랫동안 "분쟁지역"이 아닌 "실소유영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응하지 않고, 이를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한국정부가 일본의 도발에 발끈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50년의 공든 탑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는 걸 늦추어서 상정시의 "실소유기간"을 늘려 놓는게 유리한 겁니다. 실소유 100년이면 100% 우리땅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한국외교부의 정책은 박정희 이전부터의 일관된 정책으로 국제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이 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안이었습니다.

또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것중 하나, 독도에 해병대가 아닌 경찰이 지키고 있다는 것. 일본인들은 오히려 이걸 못마땅해 합니다. 경찰이 지키는 것은 "外治"가 아닌 "內治"를 뜻합니다. 세상 어느나라에서 자기 땅이 아닌곳에 군인이 아닌 경찰을 보내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남해나 서해에 있는 작은 섬들에도 대부분 군인이 아닌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나라 영토이기에 당연히 경찰이 지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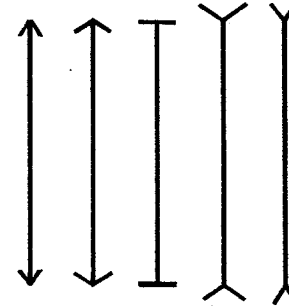
국경지대니까 해병대가 가야 한다고들 하시는데, 적국과의 경계선, 즉, 백령도 같은 곳이 아닌이상 경계지역의 섬이라도 경찰이 지키니다. 즉, 경찰이 지키는 것은 분쟁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한국땅"이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화가 날 정도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들을 우리나라 정부는 펼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한국정부에서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는 것도 사실은 "이슈화"를 최대한 막아보려는 뜻입니다. 이런 숨은 뜻도 모른채 오히려 일본인들을 위한 일인지도 모르고 자꾸 "이슈화"를 시도하려는 것은 오히려 손해 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면 이길 확률 매우 낮습니다.

현명한 장수는 자기가 유리한 때와 장소를 골라서 전쟁을 치르는 법입니다.

-한겨레에서 발췌-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1년 교회생활: "QT하는 길보리교인"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 3권 33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1년9월 2일
☎520-9464/021-292-1639. ☒10 Burleigh St(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위의 그림에서 5개의 직선의 길이가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자로 재어보면 사실은 5개의 직선은 길이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길이에 차이가 있어 보이는 이유는 양 끝에 붙어있는 선들 때문입니다.

나와 친하게 지낸다해서 모든 것이 옳고 길어보이거나 나와 뜻을 달리한다고 무조건 생각이 짧고 그릇되다는 편견에 사로 잡혀 있는것은 아닌지요? 진리에 서 있지 않는한 우리는 항상 올바르게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3:23)"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1.3절: 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46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26(시편 104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410장	다 같 이
기 도 Prayer		이경석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로마서 8:1-2(신 249)	인 도 자
부부성가대 Couple Cho'r		부부성가대
설 교 Sermon	"하나님의 사람은(4)"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337장 (마지막절은입어서서)	다 같 이
*현 금 기 도 Offera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 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9월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기도	현 금 위 원	Tea Time	주 일 안 내
2일	이경석	김영길	변지웅.신선숙	최윤희.최재학	박일영.임혜자
9일	이선우	김영태	최윤희.송정섭	김교섭.김성국	최윤희.송정섭
16일	이영권	김종건	김영길.신경화	김시욱.김영길	이영권.김영태
23일	임혜자	노은숙	이경석.한은영	김종건.박영태	김종건.박정자
30일	정의령	박영태	이선우.조순정	박일영.변지웅	최재학.정희자

'2001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 1년 성경완독 사항> 매일 QT(Quiet Time) 생활화	<등록규정>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	--

주일예배 12:00 수요예배 7:30 pm 금요새벽기도: 6:00 학생.청년부: 토요 4:00

교 회 소 식

1. 성경완독 1년
*그 동안 완독하신 성경완독표는 봉헌함에 넣어주시시오.
에베소서-딤편(1):1명. 딤편-히브리서(1): 3명
2. 제직회: 오늘 친교후 Hall에서 모입니다.
*제직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구역예배: 이번주는 구역예배 주간입니다.
*인도자 모임: 4일(화). 저녁 6시
4. 교우소식:
*기도해주세요: 박용태 집사 병환.
5. 당분간 Sunday School Room을 교회모임전용&목양실로 사용합니다.
6. 9월 교회력

	교 회 력	모임 및 행사
2일	제직회	인도자모임(4일). 구역예배(7일)
9일	성찬식	식사교제.
16일		
23일		교사기도회(31일)
30일	이삭줍기 봉헌	

일본의 소설가 오이 겐자부르가 몇 해 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소감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일찍이 문학계의 명성을 얻었던 유명한 문학평론가의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에 커다란 전환의 계기가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에게 히로키라는 정박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어째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현실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밝히고 싶은 것은 이 아이가 나의 문학에 새로운 빛을 던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 생명의 신비로움과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의 소중한 아들, 히로키는 오늘 이 자리의 나를 있게 한 나의 문학의 스승입니다"